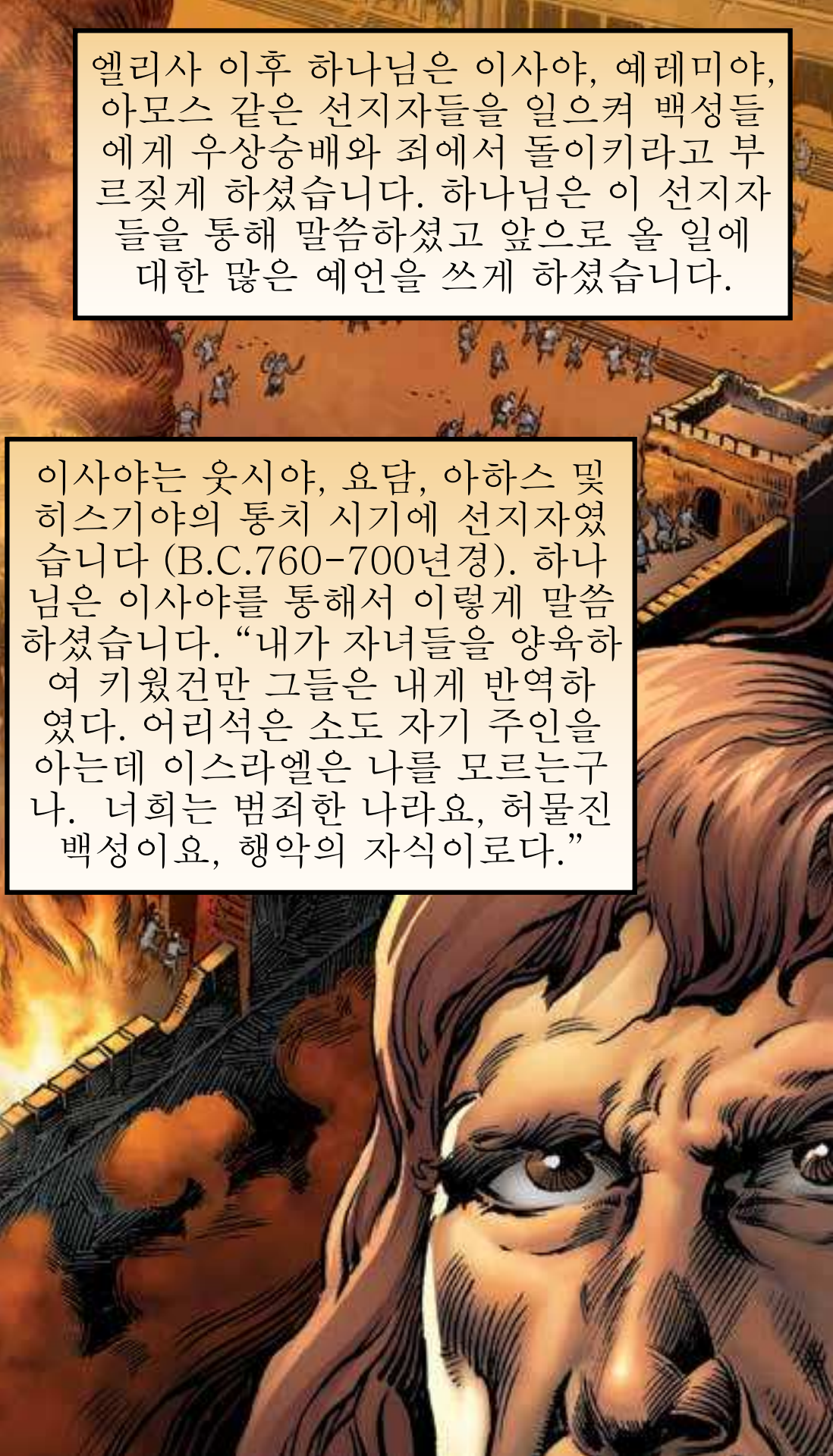


제 7장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엘리사 이후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켜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와 죄에서 돌이키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한 많은 예언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웃시야, 요담, 아하스 및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에 선지자였습니다 (B.C.760-700년경).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여 키웠건만 그들은 내게 반역하였다. 어리석은 소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모르는구나. 너희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자식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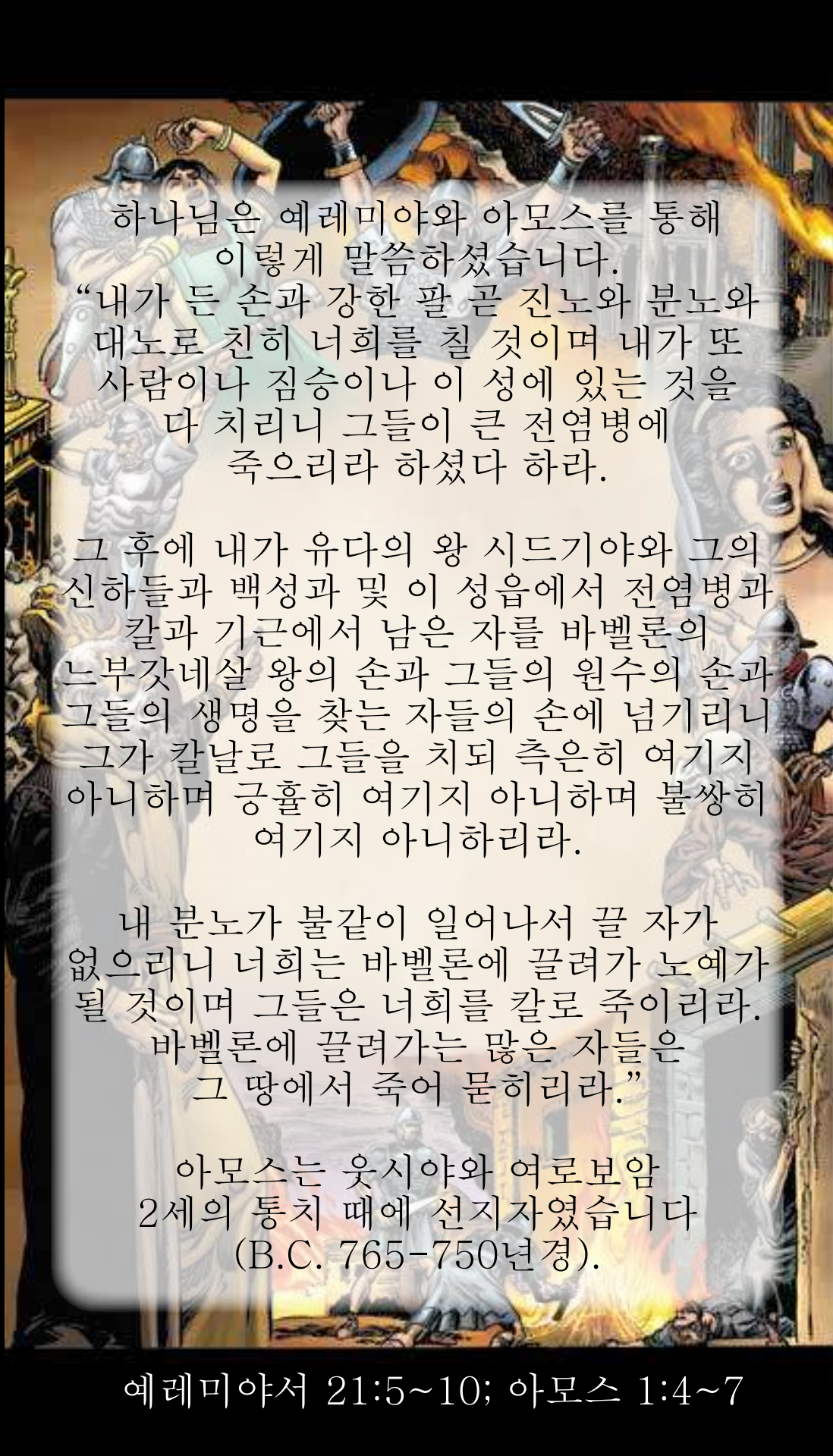
“너희가 행악을 버리고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고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칼에 삼키우리라. 너희 땅이 모두 황폐해지고 너희 성은 불에 탈 것이라. 너희 자녀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가 되어 섬기리라.”





예레미야는 요시야, 여호와김 및 시드기야 왕의 시대에 선지자였습니다 (B.C. 630-590년경).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바벨론에서 노예가 되리라. 내가 악을 인해 내 얼굴을 이 성에 대적하여 두었으니,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사야 1:2~4, 7, 16, 20, 39:7;
예레미야서 21:8~10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끝 자가
없으리니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가
될 것이며 그들은 너희를 칼로 죽이리라.
바벨론에 끌려가는 많은 자들은
그 땅에서 죽어 묻히리라.”

아모스는 웃시야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때에 선지자였습니다
(B.C. 765-750년경).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여자들은 암소 같아서 가장에게 마실 술을 넉넉히 가져오라 요구하는구나. 너희는 남편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살을 갈고리에 꿰어 바벨론에 끌려가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비싼 침대에 누워서 기름지고 부드러운 고기를 먹는구나. 포도주를 가득히 마시면서 음악을 듣는구나. 너희는 의를 땅에 내팽겨쳤다.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의로운 자를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다. 너희가 포도밭을 가꾸어도 너희 원수가 그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너희 군대는 무너질 것이며 너희는 이방 땅에 끌려가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벤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너희의 거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부수겠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궁핍한 사람을 파멸시키는구나. 내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기근과 질병을 보냈으나 그래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포도주를 더 마시려고 포도밭을 만들어도 그 포도주를 너희가 마시지 못할 것이다.



엄마, 배고파요.

B.C. 753년



호세아는 웃시야, 요담,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B.C.785-725년경).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에 죽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땅에 내던져지고 임신한 여인들은 배가 찢겨 갈라질 것이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사랑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또 다시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요, 감람나무처럼 무성해질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로워질 것이다.”



이
를
고
싶
었
는
데.

“앞으로 바벨론의 시
대가 마친 후 너희는
여러 나라로 흩어질 것
이며, 거기서 그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너희
재산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
식처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군. 우
리를 좀 내버려두
면 안되는 걸까?

엄마, 이제
어디서 살 거
예요?

이거면 괜찮은
값을 받을 거야. 유대인들
이 떠나는 것이 상당히 유
감스럽군. 장사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삼일 이내에 이 나
라에서 나가라고 하네!

이사야 10:21, 35, 51:11; 예레미야서 30:11;
에스겔 17:21; 요엘 3:2; 호세아 13:16, 14:1~6



이 문서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 땅을 떠
나야 하며 어떤 재산도 가지
고 나갈 수 없다.

늘 이 소를
갖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
역했기 때문에 땅 위의 온 나라
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조상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실 때까지 절대 안식
을 찾지 못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온 땅이 폐허가 될 것이며 너희는 칠십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칠십 년이 다 차면, 내가 그 허물을 인하여 바벨론을 벌하고 남은 자를 이 땅에 다시 데려와 이 곳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은 버림 받아 갈아엎은 밭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정말로 예루살렘을 받쳐 럼 갈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백성들이 그 곳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B.C. 750-686년에 산 선지자 미가가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나라들을 꾸짖으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쫓겨난 자를 모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예레미야서 25:11~12; 미카 3:12 (B.C. 750~686년경), 4:1~7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을 행했다. 그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바벨론에 가서 그의 백성과 함께 살겠지만 자기 눈으로는 바벨론을 보지 못하리라. 그는 장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칠십 년을 살리라.

칠십 년이 다하면 바벨론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에게 정복될 것이며 남은 사람들은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축할 것이다.



한 때의 심판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예루살
렘에는 대대로 거주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을 바벨론에 가
져가 거기 있는 사람
들 앞에서 읽으라.
그들이 돌아 오기 전
에 무슨 일을 견뎌야
하는지 알려주라.

내가 다윗의 보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고 너희는
돌아와 너희 모든 땅을
다시 소유할 것이다.



에스겔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민족
들 가운데 흠으실 것이
나 결국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그
는 절대로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
러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에 포로로 보내어 거기서 그들이 다른 신
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그
가 그들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4:3, 51:60~61,
52:11; 요에리 3:20~21; 아모스
9:11~15; 에스겔 12:15~16



“이집트도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
으리니 사십 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후에는 다시 이전처럼 위
대해지지 않을 것이나 끝날까지
지속되리라. 마지막 날에 이집트
와 앗수르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결합하여 삼자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블레셋 백성은 멸망하여 없어질 것 이라. 이처럼 아스돗, 에그론, 암몬도 없어질 것이라. 에돔은 완전히 황폐 해질 것이요, 두로는 멸하여 모든 돌 과 목재가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 두 로에는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겠고 땅이 반석처럼 매끄러워 어부들이 그 물을 펼치는 곳이 되리라.”

“그러나 페르시아 (이란)와 터
어키, 이디오피아, 리비아는
끝날까지 남을 것이며 끝날에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려 할 것
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의 산에서 죽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은 언제나 전적으로 정확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된 도시와 나라들은 예언대로 멸망했습니다. 끝까지 지탱한다고 했던 나라들은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합니다.



B.C. 605년에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군요.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5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싶어 젊고 학식 있는 청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지요. 그는 항상 계명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온 땅과
하늘의 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땅에
서부터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으나 자기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잡아간 자들은 다니엘의 성품이 좋은 것을 보고서 그를 바벨론의 학자 중 하나로 특별한 곳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으로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이런 꿈은 미래를 보
여주려고 신들이 보내
주신 꿈이다.




너희는 바벨론의
지혜로운 자들이다. 너희 말에
신들이 너희에게 계시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꾸 꿈이 무
엇이며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하지만 왕께서
그 꿈을 말씀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뜻
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
까? 신들 외에는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약 B.C. 588~605년경 볼모로 바빌론으로
끌려 감 - 다니엘 1:2~7, 17~21, 2:1~11



너희가 가짜인지
이미 다 알았다. 무슨
신들이 너희에게 이야기한단 말
이냐? 너희와 너희 가족은 다
죽을 것이며 너희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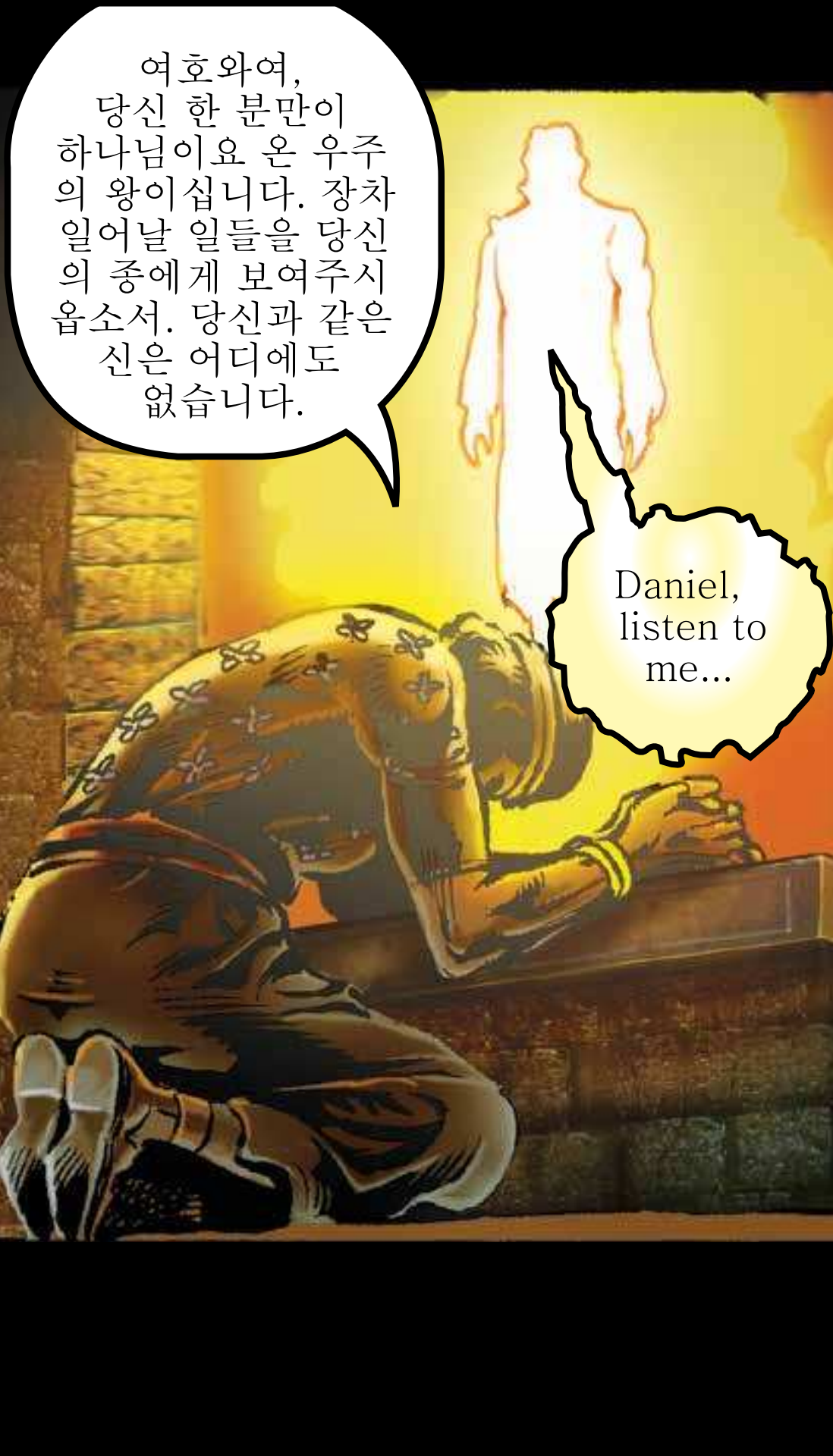



미안하게 되었네, 다니엘.
내일 자네와 바벨론에 있는 모
든 박사들이 죽임을 당할 거야.
왕이 자기 박사와 술사들을 믿
지 않다니.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의 꿈과 그 해
석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를 해야겠어요. 왕
이 하루만 기다리실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여,
당신 한 분만이
하나님이요 온 우주
의 왕이십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당신
의 종에게 보여주시
옵소서. 당신과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Daniel,
listen to
me...





어서요, 저를
왕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왕에게 그의
꿈을 말씀드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서 나를 죽이실
거다.

왕이시여,
왕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늘
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지
요. 하나님은 왕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왕의 꿈을 왕의 종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 나의 꿈을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니엘 2:12~30

왕이시여, 왕은
환상에서 한 큰 신
상을 보셨습니다. 이
신상은 왕의 나라와 그
뒤에 올 다른 세 나라
를 나타냅니다.




맞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
늘. 너의 신만
이 참 하나님이
시구나.



왕 중의 왕이시여,
왕은 바로 신상의 금
머리이십니다. 왕이 유
다를 정복하기 전에 우
리 선지자들은 하나님
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를 심판하실 것이며 왕
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
다고 말했었습니다. 지
금 왕의 통치는 영화로
울 때입니다.




은으로 된
가슴은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왕국을 상징합니다. 왕이
돌아가신 후 그들이 바벨론
을 침략할 것이고 왕께서
통치하시듯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금
머리와 은 가슴 다음에 동으로
된 배를 보셨습니다. 그 동은 세
번째 왕국인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그리스 왕국은 페르시아 다음에 올
것이며 아주 빠르고 거셀
것입니다.


네 번째 왕국은 다른 왕국들과
다를 것입니다. 그 다리는 쇠로 만
들어졌고 여러 나라들을 짓밟아 부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가락에는 쇠
와 진흙이 섞여있음을 왕은 보셨습니
다. 마지막 날에 그 나라는 열 방향으
로 나누어질 것이고 약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 후에
왕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온 것을 보셨
습니다. 그 돌은 산에서 굴
러내려와 신상의 발을 쳐 온
왕국들을 순식간에 무너뜨
렸습니다.



그 돌은
이 땅에 오서
영화로운
왕국을 건설
하실 하나님
의 아들을 상
징합니다.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때에 악을 행
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
원히 멸시받을 것이며 선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너의 말은
하나님에게서 온 말이구나.
아니면 어떻게 나의 꿈을 그렇게
상세히 알겠느냐? 내가 너를 모든
지혜자 위에 지도자로 세우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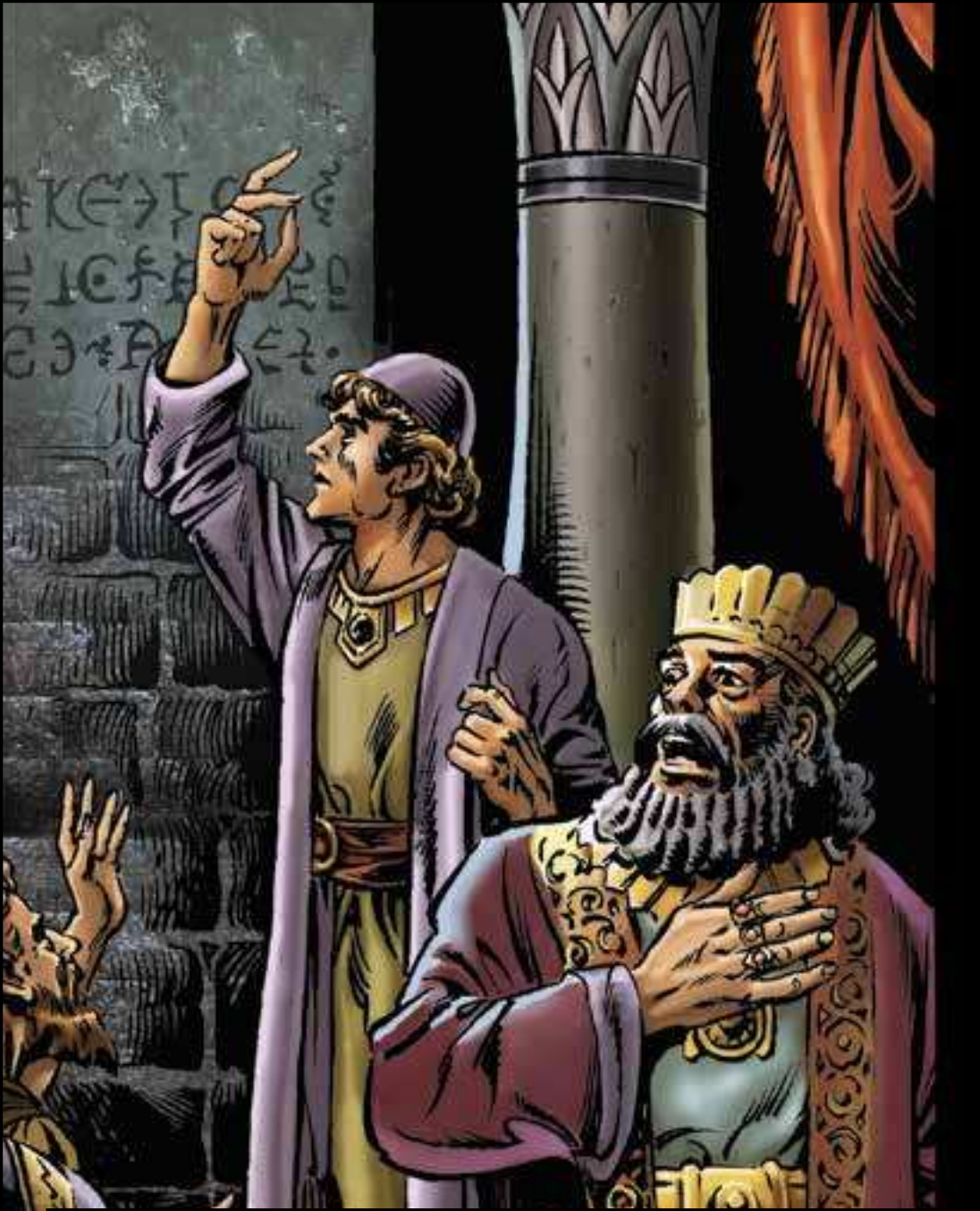


다니엘은 68년 동안 계속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꿈을 해석하고 여러 번 미래를 예언했지요. 시간이 지나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어 잔
뜩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신기한 손이 나
타나 벽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라고 불러들어왔
지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비밀스런
언어를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께 죄
를 지으셨습니다. 선지자들
이 예언한대로 왕의 나라는
바로 오늘 밤 왕에게서 빼앗
겨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
게 주어질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적들이 물이 성에 들어오는 통로인 두 문으로 몰래 들어와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 사람들은 너무 술에 취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지요. 역사는 바벨론의 함락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전도서 12:13~14; 이사야 9:6~7, 45:1;
다니엘 2:34~35, 44~48, 5:1~29; 요한계시록
20:11~21:5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오래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성경의 한 부분이 되었지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는 바벨론 포로생활이 70년이면 끝나리라고 하나님께서 전에 예언하셨음을 발견하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 예언은 나중에 남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과 성전을 다시 건축하리라고 했습니다. 계속 책을 읽어내려가며 다니엘은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라고 명할 페르시아 왕의 이름까지 언급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거의 69년이
되었어... 일 년밖에 안 남았다.
이 책을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
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가
우리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할 것이구나! 아, 우리 하나님, 우
주 만물의 왕이시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면 적들의 손에 넘
어갈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또한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약
속을 지키셨다. 이제 돌아왔으니 우리는
순종해야만 해.

고레스는 성경이 예견 한 것처럼
포로 생활의 시작부터 70년
동안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다.
52,000 명의 사람들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돌아왔다.



이제 조직을
해야겠군. 성벽을
먼저 세운 다음, 성
전을 짓기 시작
하면 돼.

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길로 행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새 물을 가져
왔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지요.

다니엘 3:1~2; 예레미야서 25:11~23, 29:10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들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바벨론 자리에 위치하고 있던 메대-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에게 조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미래에
관하여,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때에 관하여
여러 환상을 주셨습니다. 한 꿈에서는
금속으로 된 짐승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천사가 말해 주기도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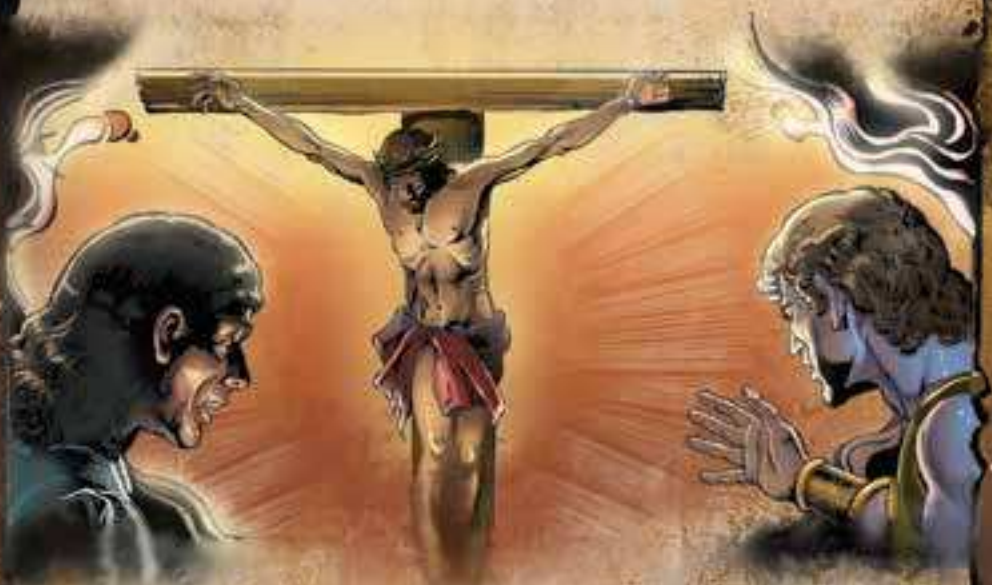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일들을
네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는 네 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다. 이제까
지 두 왕국이 있었고 이제 현재 메대 페르시아 왕
국 후에는 그리스 왕국이 올 것이다. 그 왕국은 재
빨리 정복할 것이나 곧 무너져 네 왕국으로 나뉠
것이며 서로 싸워 두 왕국만이 남을 것이다. 그들
둘은 오랫동안 서로 싸우겠고 결국 이 금속
짐승이 상징하는 네 번째 왕국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네 번째 왕국은 철과 같아서 이전 모든 왕국보다 더 강하고 거셀 것이다. 그 나라는 온 세상을 정복하겠으나 마지막 때에 열 나라로 나뉠 것이다. 그 중에 평화를 외칠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짐승의 머리에서 자라는 마지막 뿔을 상징한다. 마지막 날에 그가 듣기 좋은 말로 평화를 약속하겠지만 이는 세상을 정복하고 멸하기 위함일 뿐이다. 그가 유대 성전의 성소에 가증한 것을 세워 성전을 더럽힐 것이며 따라서 제사가 끊어질 것이다. 그 때에 온 세상에 큰 재난이 있을 것이나 의인은 구원을 받으리라.

다니엘아, 하나님은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언제 일어날지
알리기 원하신다. 성전을 복건하여
다시 건축하라는 명이 떨어진 때부터
483년이 지나면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때 성전은 또 파멸될 것이다.



이 예언은 성취되겠고 메시아가
기름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죄가
화목케 되겠고 영원한 의가 인간에게
주어지리라.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그
483년이 끝나던 바로 그 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자손이 와서 악한 자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노아에게 메시아가
야벳이나 함 족속이 아니라 셈의
족속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그의 자손에서부터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 약속된 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였고 야곱에게는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구세주의 삶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예언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가 영원부터
실제 존재하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로부터 나실 것이며 보기에 내세울
것이 없고 낮고 미천하여 당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영을
그에게 주실 것이요 그가 이방에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요
이 땅 온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오리라.
그는 고통 당하는 메시아로 백성에게 거절
당할 것이며 손발이 찢린 채 죽을 것이다.
그는 벌거벗긴 채 매달려 목말라 물을 구할
것이나 사람들은 그 대신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리라. 그는 강도들 사이에서 죽어
부유한 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다니엘 9:25~26; 마태복음 24:1~2;
히브리서 2:9

네 왕국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은 그가 예견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B.C. 330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칠 년간의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동안 광대한 메대-페르시아 왕국을 포함하여 그 당시 알려진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는 네 번째 왕국인 로마가 침략하기 시작한 B.C. 167년경까지 통치했습니다.

느브갓네살의 꿈에서 쇠로 된 다리와
발로,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에서 금속으로 된 짐승
으로 상징되었던 로마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권
세가 커지고 그 영토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B.C. 5년경에 로마는 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
렸습니다.

500년 후

다니엘의 예언 후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B.C. 6년에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지만 중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성전은 이미 재건축이 된 상태에서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잊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있었지요. 그는 거룩한 자였고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한 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예언들을 읽어왔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았지만, 이제 너무 늙어 아마도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그 자손이 일어나 악한 자의 일을 멸할 것이라고 처음 약속하신 이래 4000년의 세월이 지난 거지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350개가 넘는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https://goodandevilbook.com/>